



“독도는 우리 땅” 초등생들의 외침

호남대학교와 전남도교육청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한 울릉도·거제도·흑산도 어린이 100명이 9일 호남대 IT스퀘어 광장에서 패션페인팅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독도 티셔츠를 입고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동구 수영장 폐쇄 수순밟나

광주 동구청, 재정난 심화 ‘문화센터 합리적 운영방안’ 설문조사

“수영장 대신 뭘 하면 좋겠나?” 폐쇄 쪽에 무게…지역민 관심사로

광주 동구문화센터 수영장은 폐쇄될 것인가?

동구는 매년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는 동구문화센터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일부 질문이 수영장 폐쇄 쪽에 무게를 뒤 구청이 이미 폐쇄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수영장이 지역민들의 중요한 건강복지시설로 이용돼 왔다는 점에서 정작 폐쇄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동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 까지 4일간 동구문화센터를 직접 방문해 문화강좌·수영장·헬스클럽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부 설문 내용을 놓고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을 불러온 내용은 동구문화센터 수영장 존·폐 여부를 물으면서 폐

쇄 팬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이다. 하지만, 존치 할 경우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묻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게다가 설문 취지를 설명하면서 ‘향후 인근지역에 수영장이 건립될 예정으로 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구가 설문조사 결과를 수영장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미 폐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적지 않다. 설문지에 설문 주체를 밝히지 않은 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논란이 일면서 동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의 설문조사에 이어 2일 하루 동안 ‘수영장 존치에 찬성한다면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추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문화센터의 경우 모업체에서 위탁 운영 중인데,

적자가 심해 애로사항이 많다. 동구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음달 30일이면 위탁·운영이 끝나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영·위탁 여부를 결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층·지상 1층 규모의 동구문화센터는 2009년 7월 2일 개관됐다. 동구문화센터엔 수영장·헬스장·체육관·소극장·문화공간 등이 들어 서 있으며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이다.

이 관계자는 또 ‘결코 폐쇄 쪽에 무게를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논란이 된 부분은 추가 질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1당 70원 짜른 농협주유소 휘발유값 ‘희비교차’

운전자 “대환영”…농협, 매출 급증

인근 주유소 “생존권 위협” 율상

농협중앙회가 직영하고 있는 ‘농협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놓고 ‘희비’가 길리고 있다. 운전자들은 기름값 부담이 덜어져 크게 반기고 있지만, 인근 주유소 주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위치한 농협광주동산물유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70원 센터 옆 인근 부지에 ‘농협주유소’를 설립해 7개월째 운영하고 있다.

농협주유소는 고액 확보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광주지역 주유소 평균가격보다 휘발유를 ℥ 당 70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농협주유소는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주민 김모(56·광산구 장덕동)씨는 “농협이 유리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엄마가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주유업계도 임금 인상에 맞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유소측은 “법정허용 오차 범위의 경쟁보다 많게 주유하다 보니

운전자들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연비가 좋다는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 고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농협주유소는 하루 5000여ℓ인원이었던 매출이 8000여 원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인근 주유소업계는 “농협중앙회가 거래 자본을 동원해 영세한 유류업계에까지 진출해 출혈 경쟁하다보니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변 주유소측은 ‘셀프와 알뜰주유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시작하고도 실제로는 직원이 직접 주유를 하는 등 편법 운영하면서 인근 주유소와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 김모(56·광산구 장덕동)씨는 “농협이 유리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엄마가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주유업계도 임금 인상에 맞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주말엔 화창

오후들 맑은 날씨

광주 16/20°C 목포 16/18°C

여수 21/21°C 나주 15/20°C

완도 15/21°C 구례 15/22°C

강진 15/20°C 해남 16/20°C

장흥 16/21°C 순천 14/21°C

영광 16/18°C 진도 16/19°C

전주 15/19°C 군산 14/18°C

남원 14/19°C 혁산도 13/16°C

비다 1.0~2.0m 풍향 남~남서

민바다 1.5~3.0m

남해 서부 1.0~2.0m

민바다 1.5~2.5m

주의 높음

보통

비다 0.5~1.5m 풍향 북서

민바다 1.0~2.0m

남해 서부 0.5~1.5m

민바다 1.0~2.0m

여수 09:12

03:06

21:38 15:09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3/26 14/27 14/28 14/25 13/25 13/24

영유아 1명 보육·교육비로 연간 250만원 쓴다

복지부, 2500가구 실태조사

인 18만9500원 보다 10.1%, 2004년 15만7600원보다 32.4% 오른 수치다.

영유아 1명의 보육·교육비용으로 만 1년 평균 25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총 2500가구를 대상으로 ‘2012년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0~5세 영유아 1명에게 보육·교육 비용으로 월평균 20만7000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해 영유아 1명이 한달 평균 16만1700원을 기관비용비로 지출했다. /연합뉴스

男, 허리둘레 95cm 넘으면

신장기능 위험 3배 높아

남성과 여성의 허리둘레가 각각 95cm, 90cm를 넘으면 신장(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약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장기 주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예방의학) 김동현 교수팀은 숙명여대 이정은 교수팀과 함께 콩팥의 배설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eGFR, 단위 ml/min/1.73m²)’이 60 이상인 성인(45~64세) 454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주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男, 허리둘레 95cm 넘으면

신장기능 위험 3배 높아

남성과 여성의 허리둘레가 각각 95cm, 90cm를 넘으면 신장(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약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장기 주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예방의학) 김동현 교수팀은 숙명여대 이정은 교수팀과 함께 콩팥의 배설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eGFR, 단위 ml/min/1.73m²)’이 60 이상인 성인(45~64세) 454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주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男, 허리둘레 95cm 넘으면

신장기능 위험 3배 높아

남성과 여성의 허리둘레가 각각 95cm, 90cm를 넘으면 신장(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약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장기 주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예방의학) 김동현 교수팀은 숙명여대 이정은 교수팀과 함께 콩팥의 배설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eGFR, 단위 ml/min/1.73m²)’이 60 이상인 성인(45~64세) 454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주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男, 허리둘레 95cm 넘으면

신장기능 위험 3배 높아

남성과 여성의 허리둘레가 각각 95cm, 90cm를 넘으면 신장(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약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장기 주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예방의학) 김동현 교수팀은 숙명여대 이정은 교수팀과 함께 콩팥의 배설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eGFR, 단위 ml/min/1.73m²)’이 60 이상인 성인(45~64세) 454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주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男, 허리둘레 95cm 넘으면

신장기능 위험 3배 높아

남성과 여성의 허리둘레가 각각 95cm, 90cm를 넘으면 신장(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약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장기 주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예방의학) 김동현 교수팀은 숙명여대 이정은 교수팀과 함께 콩팥의 배설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eGFR, 단위 ml/min/1.73m²)’이 60 이상인 성인(45~64세) 454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주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男, 허리둘레 95cm 넘으면

신장기능 위험 3배 높아

남성과 여성의 허리둘레가 각각 95cm, 90cm를 넘으면 신장(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약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장기 주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예방의학) 김동현 교수팀은 숙명여대 이정은 교수팀과 함께 콩팥의 배설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eGFR, 단위 ml/min/1.73m²)’이 60 이상인 성인(45~64세) 454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주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男, 허리둘레 95cm 넘으면

신장기능 위험 3배 높아

남성과 여성의 허리둘레가 각각 95cm, 90cm를 넘으면 신장(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약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장기 주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예방의학) 김동현 교수팀은 숙명여대 이정은 교수팀과 함께 콩팥의 배설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eGFR, 단위 ml/min/1.73m²)’이 60 이상인 성인(45~64세) 454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주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男, 허리둘레 95cm 넘으면

신장기능 위험 3배 높아

남성과 여성의 허리둘레가 각각 95cm, 90cm를 넘으면 신장(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약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장기 주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예방의학) 김동현 교수팀은 숙명여대 이정은 교수팀과 함께 콩팥의 배설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eGFR, 단위 ml/min/1.73m²)’이 60 이상인 성인(45~64세) 454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주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男, 허리둘레 95cm 넘으면

신장기능 위험 3배 높아

남성과 여성의 허리둘레가 각각 95cm, 90cm를 넘으면 신장(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약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장기 주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예방의학) 김동현 교수팀은 숙명여대 이정은 교수팀과 함께 콩팥의 배설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eGFR, 단위 ml/min/1.73m²)’이 60 이상인 성인(45~64세) 454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주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